

# 라오스 기술통신부 방문단, 광주테크노파크 방문

✎ 김경태 기자 | ☎ 승인 2024.04.08 14:50

한·라 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등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광주테크노파크와 라오스 기술통신부 디지털기술국 관계자들이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 이하 광주TP)는 라오스 기술통신부 디지털기술국 관계자들이 최근 광주TP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광주TP의 선진사례를 공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라오스 기술통신부 프로젝트 매니저인 타누쏰 부아라파(Thanousone BOUALAPHA)를 비롯한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라오스 비엔티안 테크노파크(이하 LVTP) 조성 이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광주테크노파크와 라오스 기술통신부 디지털기술국 방문단 간담회 장면.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광주TP는 지역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추진현황과 선진사례를 공유했다. 라오스측 관계자는 ▲광주TP의 지역중소기업 성장지원 정책 및 운영전략 ▲한국인정기관(KOLAS) 시험인증지원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영집 원장은 “광주TP의 사례가 LVTP의 관리 및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교류 협조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